

- ① 불법사금융 유입규모 관련,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정방식과 가정 등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으나, 기존 고금리 이용자 수(20% 초과, 239만명) 및 과거 인하시 영향* 등을 감안할 때 300만명은 과도한 추정이라고 우려됩니다.

* (참고) 직전 최고금리 인하('18.2, 27.9%→24%)시 **24% 초과 채무자** 영향 추정결과,
- 약 **81.4%**(113.9만명)가 **24% 이하 대출로 흡수되어 이자부담이 경감**되었으나
- 약 18.6%(26.1만명)의 금융이용 축소, 이중 **4~5만명이 불법사금융 유입 가능성 추정**

- 정부는 회사별 현황 자료 및 기존 금리 인하('18.2월)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여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.

-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고금리(20% 초과) 이용자 중 약 **87%**(208만명)의 이자 경감 효과(연 4,830억원)가 예상되는 한편,
- 약 **13%**(31.6만명)는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, 이 중 채무조정·절약 등을 제외하면 **3.9만명의 불법사금융 유입 가능성**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.

- ② 또한,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**대환대출(안전망대출II*)**을 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고,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며,

* 연 20% 초과 고금리 대출을 ① 1년이상 이용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하며
② 정상상환중인 저소득·저신용자 대상

-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부업·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,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추진하는 등의 보완 방안*도 함께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.

〈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 주요 내용〉

- ① 대환대출(안전망대출II) 3천억원 공급, 햇살론¹⁷ 금리 2%p 인하 및 햇살론 유스 1천억원 확대 등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
- ② 대부중개수수료 인하,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 금융 공급 활성화 유도
- ③ 중금리대출 개편 및 제2금융권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
- ④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범정부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 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 추진

□ 정부는 향후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,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